

[정답]

문 항	1	2	3	4	5	6	7	8	9	10
정 답	⑤	③	④	②	④	①	⑤	①	④	③
문 항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정 답	①	④	②	⑤	⑤	④	②	③	⑤	②
문 항	21	22	23	24	25	26	27	28	29	30
정 답	③	④	③	②	④	③	①	⑤	②	①

[해설]

1. [정 답] ⑤

[해 설] 제시한 그림에 대한 대화에 나오는 한자어의 빠진 한자 유추하기

- ① 適(적) 가다 ② 跡(적) 자취 ③ 積(적) 쌓다 ④ 摘(적) 따다 ⑤ 寂(적) 고요하다
* 破寂圖(파적도) 고요함을 깨뜨린 그림

2. [정 답] ③

[해 설] 자전 찾기

- ㉠ 弦(현) 시위, 부수-弓-5획 ㉡ 銅(동) 구리, 부수-金-6획

3. [정 답] ④

[해 설] 부수로 쓰일 때 자형이 변하는 변형부수 찾기

- ① 手 + 夫 = 扶(부) 돕다 ② 心 + 貫 = 慣(관) 버릇 (계) 시내 ③ 水 + 奚 = 溪
④ 木 + 每 = 梅(매) 매화나무 ⑤ 肉 + 干 = 肝(간) 간

4. [정 답] ②

[해 설] 한자의 독음(동음자 연결)

- ① 戶(호)-所(소)-房(방) ② 化(화)-花(화)-貨(화) ③ 方(방)-於(어)-放(방)
④ 貝(패)-財(재)-敗(패) ⑤ 書(서)-晝(주)-晝(화)

5. [정 답] ④

[해 설] 사자성어 퍼즐의 공통한자 찾아서 제자원리 이해하기

- * 千辛萬苦(천신만고) : 마음과 몸을 온가지로 수고롭게 하고 애씀
* 苦盡甘來(고진감래) :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. 즉, 고생(苦生) 끝에 낙이 온다.

* 苦(고) 쓰다 - 형성자

- ① 本(본) 뿌리-지사자 ② 尖(첨) 뾰족하다-회의자 ③ 名(명) 이름-회의자
④ 管(관) 피리-형성자 ⑤ 鳥(조) 새-상형자

6. [정 답] ①

[해 설] 성어의 빠진 한자 유추하기

- * 千篇一律(천편일률) 천 권의 책이 하나의 범령처럼 똑같음
- * 百家爭鳴(백가쟁명) 여러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일
- * 一騎當千(일기당천) 한 기병이 천 명의 적을 당해 냄
- * 朝三暮四(조삼모사)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어 농락함
- * 聞一知十(문일지십)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미루어 앎

7. [정 답] ⑤

[해 설] 한자어의 활용

- * 컴맹 : 컴퓨터 장님 - 盲(맹) 소경
- * 초스피드 : 매우 빠른 속력 - 超(초) 뛰어넘다
- * 軟鷄(연계) : '영계'의 원말

8. [정 답] ①

[해 설] 공익광고 포스터의 내용과 관련된 한자어 - 한자어의 활용

- ① 讓步(양보) ② 經濟(경제) ③ 健康(건강) ④ 節約(절약) ⑤ 環境(환경)

9. [정 답] ④

[해 설] 앞뒤의 의미가 대립으로 이루어진 한자성어의 활용

- o 送舊迎新(송구영신) 묵은해를 보내고, 새해를 맞이함
- ① 大同小異(대동소이) 크게 보면 서로 같지만 작게 보면 각각 다르다는
- ② 愚問賢答(우문현답)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
- ③ 遠交近攻(원교근공) 먼 나라와 친하고 가까운 나라를 쳐서 점차로 영토를 넓힘
- ④ 天崩地壞(천붕지괴)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짐
- ⑤ 外柔內剛(외유내강)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우나 속은 꾀꿇하고 강함

10. [정 답] ③

[해 설] 시조의 내용을 성어로 이해하기

- ① 目不忍見(목불인견)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나 꼴불견
- ② 我田引水(아전인수) 제 논에 물대기,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려는 것
- ③ 首丘初心(수구초심)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,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
- ④ 伯牙絕絃(백아절현)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
- ⑤ 尾生之信(미생지신) 미생이란 사람의 믿음이란 뜻으로, 미련하도록 약속을 굳게

지키는 것이나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

11. [정 답] ①

[해 설] 그림의 내용을 성어로 이해하기

- ① 自業自得(자업자득)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보(果報)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감
- ② 自信滿滿(자신만만) 아주 자신이 있음
- ③ 自初至終(자초지종) 처음부터 끝까지
- ④ 自手成家(자수성가) 스스로의 힘으로 일가(一家)를 이룸
- ⑤ 自由自在(자유자재) 거침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

12. [정 답] ④

[해 설] 일상대화의 내용을 성어로 이해하기

- ① 너희는 완전히 고립되었어 - 四面楚歌(사면초가)
- ② 대충 말해줘도 모두 알아듣는구나 - 聞一知十(문일지십)
- ③ 그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- 生面不知(생면부지)
- ④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결국 살아났구나 - 九死一生(구사일생)
- ⑤ 이번 시험은 응시자 대부분이 통과할 거야 - 十中八九(십중팔구)

13. [정 답] ②

[해 설] 동음이의 한자어의 이해

- * 景氣(경기) 생산·물가·고용이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순환을 반복하는 경제활동의 상황
- * 競技(경기) 기술의 낮고 못함을 서로 겨루는 일

14. [정 답] ⑤

[해 설] 그림의 내용과 관계있는 한역속담 찾기

- ① 遠親不如近隣 :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
- ② 陰地轉, 陽地變 : 음지가 바뀌어 양지로 변하다
- ③ 不入虎穴, 不得虎子 :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, 호랑이 새끼를 얻지 못한다
- ④ 始用升授, 還以斗受 : 처음에 되로 주고, 도리어 말로 받는다
- ⑤ 衆人出力, 費小而惠大 :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비용은 적게 들고 혜택은 크게 된다

<15~16번 전문 해석>

-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는데,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: “정치라는 것은 바른 것인데, ㉠그대가 바르게 거느린다면 누가 감히 바르게 하지 않겠는가?”
-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: 진실로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를 하는데에 ㉡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며,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하겠는가?

15. [정 답] ⑤

[해 설] 문장의 해석과 내용 이해

- ① 其身正, 不令而行 : 자신이 바르면, 명령하지 않아도 행동한다
- ② 其身不正, 雖令不從 :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, 비록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
- ③ 未有其不正而能正人者 :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서 남을 능히 바르게 하는 자는 있지 않다
- ④ 君義, 莫不義, 君正, 莫不正 : 임금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는 자가 없고, 임금이 바르면 바르지 않는 자가 없다
- ⑤ 不患人之不己知, 患不知人也 :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, (내가) 남을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라

16. [정 답] ④

[해 설] 문장에서의 어구풀이

○ 何有 : ‘何難之有’(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?)의 뜻으로 본다.

<17~19번 전문 해석>

맹자가 어렸을 때 이미 배우고 돌아왔다. 맹모가 바야흐로 베를 짜다가 물어 말하길, “배움이 어느 곳에 이르렀느냐?”하니 맹자가 말하길 “이전과 같습니다.”하였다. 맹모가 칼로 그 짜던 베를 끊거늘 맹자가 놀라 그 까닭을 물으니 “네가 학업을 그만 두는 것은 ㉠내가 이 베를 끊는 것과 같다”라고 했다. <중략> 맹자가 두려워하여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쉬지 않고 자사를 ㉡스승으로 섬겨, 마침내 천하에 이름난 선비가 되었다.

17. [정 답] ②

[해 설] 글에서 유래한 성어 찾기

- ① 言語道斷(언어도단) 말할 길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곧, 말로써 나타낼 수가 없음
- ② 斷機之戒(단기지계)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음
- ③ 一刀兩斷(일도양단) 한칼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낸다는 뜻으로, 머뭇거리지 않고 일이나 행동을 선뜻 결정함
- ④ 優柔不斷(우유부단) 어물어물하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을 하지 못함
- ⑤ 斷金之交(단금지교) 쇠라도 자를 수 있는 굳고 단단한 사귄

18. [정 답] ③

[해 설] 1인칭대명사의 쓰임

○ 1인칭대명사 : 吾(오), 我(아), 予(여), 己(기)

- ① 是(시)-이 ② 君(군)-2인칭 ④ 他(타)-3인칭 ⑤ 彼(피)-3인칭

19. [정 답] ⑤

[해 설] 문맥 파악을 통해 빠진 한자어구 유추하기

o 師事(사사) : 스승으로 섬기다

20. [정 답] ②

[해 설] 제시한 문장의 내용에 알맞은 그림 찾기

- o 배암이향명, 의야, 이명이도암, 인야. <암서집 - 燈銘(등명)>
- o 어두움을 등지고 밝음을 향하니 ‘의’이고, 밝음으로써 어두움을 이끄니 ‘인’이다.

<21~22번 전문 해석>

유정이 왜의 진영에 들어가니 왜적의 무리가 길게 줄지어 서있었다. 유정은 두려운 기색 없이 청정을 보고 조용히 부드럽게 ㉠답소했다. 청정이 유정에게 일러 말하기를 “㉡그대 나라에는 보물이 있습니까?” 유정이 대답하기를 “우리나라에는 다른 보물이 없다. 오직 너의 머리를 보물로 여긴다.” 청정이 말하길 “무슨 말인가?” 대답하길 “우리나라에서는 너의 머리를 금 천근과 읍 만호로 현상금을 걸었으니 보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?”하니 청정이 크게 웃었다.

21. [정 답] ③

[해 설] 한자어의 독음

- o 談笑(담소)

22. [정 답] ④

[해 설] 글의 문맥과약을 통해 빠진 내용 유추하기

<23~25번 전문 해석>

그 후 다시 얼굴이 잘생긴 남자를 뽑아 곱게 단장시켜, ‘화랑’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하고, 그를 떠받들게 하였다. 그러자 무리들이 ㉠구름처럼 모여 들었다. 그들은 더러는 도의를 서로 연마하고, 더러는 노래와 음악을 서로 즐기면서 산수를 찾아 유람하여, 먼 곳이라도 그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. ㉡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알게 되었으니, 그 중에서 선량한 인물을 택하여 조정에 추천하였다. 화랑세기에 “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에서 나왔고,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이에서 생겼다”라고 하였다.

23. [정 답] ③

[해 설] 한자어의 짜임

- ㉠ 雲集(운집) : 구름처럼 모이다 - 수식
- ① 霧散(무산): 안개처럼 흩어지다 - 수식 ② 蜂起(봉기): 벌처럼 일어나다 - 수식
- ③ 霜降(상강): 서리가 내리다 - 주술 ④ 電擊(전격): 번개처럼 치다 - 수식
- ⑤ 蠶食(잠식): 누에처럼 갉아먹다 - 수식

24. [정 답] ②

[해 설] 문장의 해석 순서

○ 이로(此) 인하여(因) 그 사람들의(其人) 옳고 그름을(邪正) 알게 되었다(知)

25. [정 답] ④

[해 설] 글의 전체 내용의 이해

<26~27번 전문 해석>

부여는 은나라 역법으로 정월에 하늘에 제사지내고 나라 안(사람들)이 크게 모여 연일 마시고 먹으며 노래하고 춤추니 이름하여 영고라 한다. 이때에 형벌과 옥사를 중단하고 죄수들을 풀어주었다. <중략> 길을 가는데 밤낮으로 ㉠노인이나 어린아이 할 것없이 모두 노래를 불렀는데, 온종일 노래소리가 ㉡끊어지지 않았다.

26. [정 답] ③

[해 설] 문장의 해석

27. [정 답] ①

[해 설] 문맥상 빠진 글자 유추하기

○ 絶(절) 끊다

<28~30번 전문 해석>

(가) 해는 산에 기대어 지고, 황하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네.
천 리를 다 바라보고자, 다시 한층 더 누각을 오르네.

(나) 반가운 저 비는 시절을 알고, 봄이 되자 바로 내리는 구나.
바람 따라 밤중에 몰래 스며들어, 소리 없이 촉촉이 만물을 적시네.
들길에는 구름 끼어 캄캄한데, 강에 뜬 배의 불빛만 유독 밝구나.
새벽녘 불그레 젖은 곳을 보면, 금관성에 꽃들이 가득 피었으리.

28. [정 답] ⑤

[해 설] 한시의 형식과 감상

29. [정 답] ②

[해 설] 한시의 시어 풀이

② ㉠目 : 목적 ⇒ 보다

30. [정 답] ①

[해 설] 한시의 감상